

이명박, 징역 15년형 불복 항소

변호인 “다스 관련 의혹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

이명박(77·사진)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지난 12일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앞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너털히 인정된다”며 “김



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혐의 총 16개 중 ▲다스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이상 특가법상 횡령) ▲다스 미국 소송비 삼삼 대

납(특가법상 뇌물) ▲2008년 4~5월·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총 4억원 수수 ▲2011년 9~10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7개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진실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송효철 기자

민간위탁 사무개선방향 모색

전주시가 민간위탁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 시설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과 김병수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민간위탁 운영실태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개선방안을 등을 발제했다.

이어 도내대학 교수들과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 시설담당자들로 구성된 6명의 토론회자들이 자유토론에 나서 전주지역 민간위탁 시설들이 처한 환경과 과거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들이 겪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 했다. /송효철 기자



에코시티에 첫번째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서
전주시는 지난 12일 송천동 에코시티 더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광문)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인 에코시티 더샵 어린이집을 20년간 전주시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국공립으로 전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 자택과 성남시청 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고 재삼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기간 방송토론 등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데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뉴스1

전북경찰 야간근무자 건강 ‘적신호’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 이상자 66.3%에 달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우려되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야간근무 경찰관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 근무를 하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건강 이상 소견이 66.3%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돼 야간근무자에 대해 특수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773명이었다.

이 중 유소견자는 181명(23.4%), 요관질환자는 233명(30.1%)으로 나타났다.

유소견자는 질병 소견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요관질환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황을 뜻한다.

이 같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야간근무자가 절반 이상으로 확인되며

경찰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야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1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비빔밥축제 성공 이끈다

자원봉사자 ‘비비미’ 발대식·현장업무 교육

‘2018 전주비빔밥축제’를 이끌 자원봉사자 ‘비비미’가 발대식을 갖었다.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지난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올해 축제 현장에서 함께 활동할 ‘비비미’ 100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현장업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비미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및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주비빔밥축제’ 현장에서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안내 △비빔면 설, 쿠키콘서트 등 음식 관련 메인 행사 준비 지원 △비빔문화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진행 지원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 등의 활동하게 된다.

비빔밥축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들에게는 행사유니폼이 지급되고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전 기간 활동 완료시에는 참여 증서와 기념품도 지급된다. 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의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축제 현장에서 뛰는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축제의 핵심”이라며 “축제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인 비빔밥축제를 성공으로 함께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관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한민국 미식 수도 전주에서 개최되는 대표 음식문화축제와 함께 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행사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만의 전통문화콘텐츠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볼거리 가득, 시민·관광객도 봉안행렬에 참여

브라질 삼바축제처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태조어진 봉안의례가 지난 13일 전주에서 재현됐다.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전주 경기전에 봉안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인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로 매년 이때 개최된다.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1688년(숙종 14년)에 태조어진을 새로 모사하기 위해 경기전의 어진을 서울로 옮겨다가 다시 전주로 옮기는 과정을 고증을 통해 진행하는 행사로, 진발의식과 태조어진 봉안행렬, 봉안고유제로 구성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재현행사는 시청 앞을 주정소(耆亭所, 왕이 행차 중에 멈추어 쉬는 곳)로 정하고,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의식(進發儀式, 출발을 알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봉안장소인 경기전까지 봉안행렬이 이어졌다.

태조어진 봉안행렬의 선두는 어진을 호위하는 전라감사가 이끌고, 전사대와 신어(神輿), 향정자(香亭子), 전부고취, 신연(神簾), 후부고취, 중사, 사관, 도제조, 후사대 등이 뒤따라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또한, 시청 앞에서 출발한 행렬은 풍남문사거리로 도착해 약 10분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행렬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도 가졌다.

봉안행렬은 경기전 정문을 통과해 강연소에 도착, 의장이 도열한 가운데 의신문과 내신문을 통과하여 경기전 정전에 도착한 어진에는 신어에서 꺼내져 정전으로 옮겨졌다.

이와 관련, 시는 조선왕조의 봉안인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태조어진 봉안의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고증을 통해 의례 구성원의 복식·의장 등을 단계적으로 구입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태조어진 봉안의례의 참여인원 또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봉안의례를 재현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축제형·시민참여형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황관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태조어진 봉안의례를 문화특별시 전주만의 전통문화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전주의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와 품격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